

서울시민, 사회집단간 소통 원활... 소수집단 포용력은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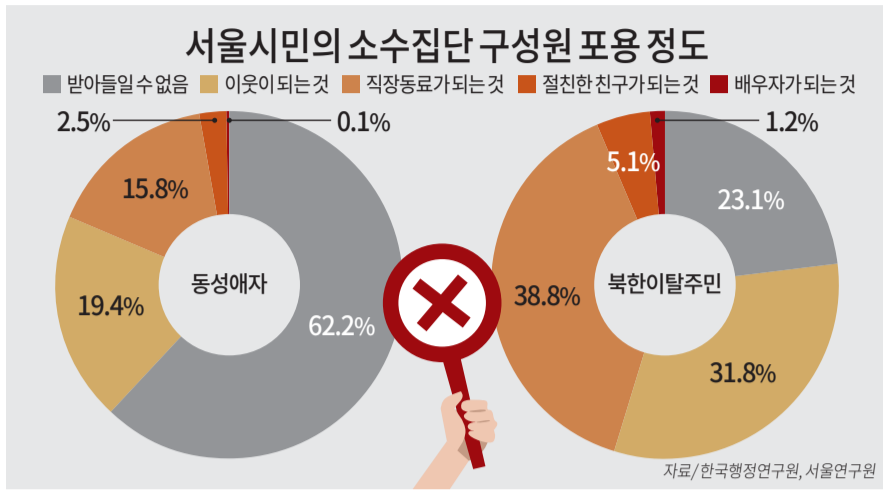
서울연구원 사회통합 실태조사 가족 간 소통 '우수' 95% 달해 새터민 받아들일 수 없다 23.1%

서울은 다른 수도권보다 사회집단간 소통은 원활하나 소수집단에 대한 포용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분석했더니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지난 2020년 19세 이상 서울시민은 ▲가족 간 ▲직장 구성원 간 ▲이웃 간 ▲세대 간 순으로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인식했다.

사회집단 간 소통 정도를 묻는 항목에서 가족 간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다('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 '약간 이뤄지고 있다' 응답률)고 답한 서울시민은 95%에 달했다. 같은 문항에서 서울 외 수도권 주민의 응답 비율은 88.7%로,



서울시민과 6.3%포인트 차이가 났다.

직장 구성원 간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응답한 서울시민은 80.1%에 이르렀다. 이는 서울 제외 수도권의 응답 비율인 58.8%와 비교해 21.3%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웃 간 소통이 원만하다는 서울시민은 50.1%였다. 서울이 아닌 수도권 주

민의 경우 응답자의 34.9%만이 이웃과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모두 세대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민의 과반수 이상인 53.9%가 세대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응답

률)고 답했다. 서울 외 수도권 지역에서도 응답자의 68.2%가 세대 간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했다.

사회집단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연령대는 60세 이상과 19~29세였다. 60세 이상은 '세대 간' 소통이 가장 원활하지 못하다('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응답률, 64.9%)고 여겼다. 이어 '이웃 간'(40.8%), '직장 구성원 간'(24.3%) 순으로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19~29세는 '이웃 간'(62.6%), '세대 간'(52%), '직장 구성원 간'(22.1%) 순으로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느꼈다.

서울은 경기, 인천 지역보다 소수집단에 대한 포용력이 떨어지는 편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서울시민은 23.1%였다. 서울 외 수도권 지역의 경우 새터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 비율은 10.5%로 서울보다 12.6%포인트 낮았다.

서울시민 응답자 가운데 탈북민이나 직장동료가 되는 것은 38.8%, 이웃이 되는 것은 31.8%가 가능하다고 했다.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배우자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률은 각각 5.1%, 1.2%밖에 되지 않았다.

또 서울시민 10명 중 6명 이상(62.2%)은 동성애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서울이 아닌 수도권 주민의 경우 절반 정도인 50.1%가 성소수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이는 서울보다 12.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민 응답자 가운데 성소수자나 이웃이 되는 것은 19.4%가, 직장동료가 되는 것은 15.8%가 가능하다고 했다.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배우자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은 각각 2.5%, 0.1%에 그쳤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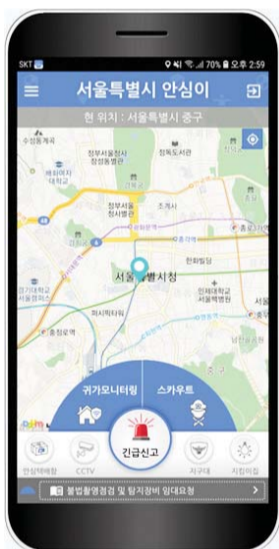
안심귀가스카우트, 근무중 성범죄자 검거

순찰중 목격... 신속한 상황 처리 서울시, 대원들에 표창 수여 예정

서울시는 밤길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기 위해 배치한 안심귀가스카우트 대원의 신고로 성범죄자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14분께 금천구 시흥5동 골목길을 순찰하던 스카우트 대원 2명은 60대 남성이 10대 여성의 손목을 잡은 채 어디론가 데려가는 것을 목격했다.

여성의 걸음이 반쯤 벗겨져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스카우트 대원들이 두 사람을 뒤따라갔다. 60대 남성이 근처 벤치에 앉아 10대 여성을 안으려 하자 스카우트 대원이 개입해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지를 확인했다.



안심이 앱 이용 예시.

/서울시

60대 남성은 술집에서 만난 사이라고 답했으나, 10대 여성은 자신의 나이를 여섯 살이라고 하는 등 공포에 질려 피

해 상황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고 시는 전했다. 위험한 상황임을 직감한 대원 중 한 명이 112에 신고했고, 이 남성은 2분 후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60대 남성을 성범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금천경찰서는 신속한 상황 처리로 검거에 기여한 안심귀가스카우트 대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도 대원들에게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안심귀가스카우트는 2인 1조로 구성된 스카우트가 늦은 밤(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1시) 귀가하는 시민들을 잡가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서비스다. 이용 희망자는 도착 30분 전에 다산콜센터나 '안심이 앱'을 통해 예약 신청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서남병원, 찾아가는 동행진료 시작

9년간 3240명에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진 10여 명으로 꾸려진 진료팀

서울시 서남병원이 지난 25일을 시작으로 '2022년 찾아가는 서남동행진료'를 본격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서남권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서남동행진료 프로그램은 2013년 5월, 양천노인종합복지관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9년간 3240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날 서남동행진료는 주택관리공단 서울지사 가양7 마이홈센터와 협업하여 진행되었으며, 공공의료사업단 문성진 리더이사 등 의료진 10여 명으로 꾸려진 진료팀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무료 진료를 추진했다.

가양7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의료취

약계층 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무료진료에서는 혈압·혈당·혈액검사·진료 및 건강상담, 감염관리 교육을 시행했으며 필요 시 약 처방 및 복약상담을 이어갔다.

또한 검사 결과에 따라 진료소견서 발급을 통해 서남병원을 비롯하여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서울시 서남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와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재택병상대기자 관리 상황실,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운영 등 확진자 치료와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

1일부터는 응급실 및 건강검진, 일반 병상 운영 등 일반진료를 재개한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이재준 시장, 민주당 고양시장 후보 확정

3명의 후보 제치고 선출

이재준 고양특례시장이 30일, 6·1 지방선거 고양시장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최종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준 시장이 김영환, 민경선, 박준 후보 등 4명이 겨룬 당내 경선에서 고양시장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당사에서 열린 고양시장 후보 선출 개표에서 권리당원 투표와 고양시민 여론조사를 반영한 결과

최종 득표율에서 이 시장이 가장 앞서 고양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이번 민주당 고양시장 후보내부경선은 권리당원, 시민 여론조사를 각 50:50의 방식으로 반영해 진행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재준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선에서 확정된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는 8,9대 재선 경기도 의원을 지냈으며, 지난 2018년도에 고양시장으로 당선되어 재직해 왔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시

'이룸통장' 참가자 모집

서울시는 중증 장애 청년의 자립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이룸통장' 참가자 700명을 이달 2일부터 신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룸통장은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 자금 마련을 위해 서울시가 2018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올해 5년 차를 맞았다.

이룸통장 참가자가 일정 금액(10·15·20만원)을 선택해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김현정 기자

뉴스비타민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젤렌스키, 러시아군에 “우크라이나서 전투 중단해라” 직접 호소 /사진 뉴스
▲ 日, 동해에 극초음속무기 감시 추적용 무인기 상시 배치 추진

▲ 러시아, 중국과 무역액 2024년까지 연간 2000억\$로 확대 전망
▲ 러시아, 미국과 ‘전략적 안정대화’ 동결 정식 선언



▲ 웨이퍼 들었던 바이든,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하나...기대감 ↑ /사진 뉴스
▲ 영국 의회서 음란물 본 남성 의원 결국 사임